美团 배달기사 월 평균 1.1만元 번다

블루칼라 평균치 '훌쩍'

어지간한 직장인보다 낫다는 중국 음식배달서비스 플랫폼 메이퇀(美团) 배달기사 급여가 공개됐다. 19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왕싱(王兴) 메이퇀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직원에 보낸 서신에서 지난해 메이퇀 플랫폼에서 활동한 배달기사는 약 745만 명으로 약 800억 위안(15조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메이퇀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정해진 근무 일수와 시간에 따라 주문을 받는 '러파오(乐跑)' 배달기사 월 평균 수익은 1선 도시에서 1만 1014위안(210만원), 3선 이하 도시에서 7197위안(135만원)에 달했다.

또한 연간 260일 이상,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주문을 받은 '크라우드소싱(普通众包)' 배달기사의 월평균 수익은 1선 도시에서 7354위안(140만원), 3선 이하 도시에서 5556위안(105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메이퇀연구원은 지난해 활동한 메이퇀 배달기사 745만 명 가운데 연간 260일 이상 주문을 받은 인원 비중은 11%로 약 81만 95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연간 30일 미만 주문을 받은 배달기사 수는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했다.

한편, 앞서 중국 인터넷에 떠돌던 메이퇀 배달기사 745만 명 가운데 석사 출신이 8만 명, 4년제 대학 출신이 30만 명, 크라우드소싱 배달기사 수는 5100만 명에 달한다는 데이터와 관련해 메이퇀 연구원은 "본과(4년제 대학 졸업생), 석사 졸업생 데이터는 개인이 학위 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당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확정할 수 있다"면서 "현재 떠도는 관련 데이터는 모두 사실무근의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민희 기자

징동, 알리바바 제쳤다

중국기업 Top 500, 민영기업 1위는 '징동'
알리바바 21위, 화웨이 30위, 텐센트 37위
메이퇀 올해 첫 100위권 진입

중국 500대 기업 최신 명단이 공개됐다. 징동이 12위를 차지하며 민영기업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2일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지난 11일 2024 중국 500대 기업 포럼에서 중국기업연합회, 중국기업가협회가 제23차 중국 500대 기업을 공개했다. 상위 100대 기업 중 민영기업은 IT, 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민영 철강분야는 다소 부진했다.

이번에 선정된 500개 기업 중 매출이 1000억 위안(약 18조 8090억 원) 이상인 기업은 253개로 전체 50% 이상을 차지했다. 16개 기업의 매출은 1조 위안(약 188조 900억 원)을 넘었다. 500대 기업 순위 커트라인은 매출 374억 8100만 위안(약 7조 49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억 8300만 위안(약 720억 3847만 원) 소폭 높아졌다.

전체 순위 1위는 국가전력망(国家电网)이 차지했다. 이후 중국석유화공(시노펙), 중국석유천연가스(페트로차이나), 중국건축(中国建筑),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철도공정, 중국은행, 중국철도건축, 중국바오우철강 등 11위까지는 모두 국영기업이 차지했다.

징동그룹은 12위를 차지하며 민영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같은 IT 업종에서는 알리바바가 21위, 화웨이 30위, 텐센트가 37위를 차지했다. 알리바바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한 징동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15위에 머물렀다.

알리바바는 지난 2021년부터 중국 500대 기업에서의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21년부터 19위, 20위, 21위를 차지했고 올해 역시 21위에 머물렀다. 최근 2개 분기동안 고객 체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GMV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상태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알리바바의 장기적인 숙제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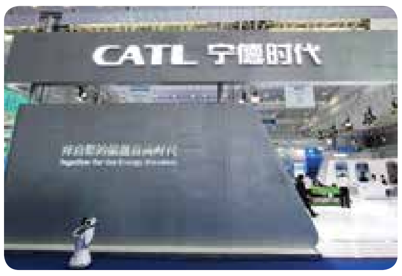
텐센트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순위가 39위, 44위, 37위에 머물렀다. 기존의 주력 사업인 본토 게임 사업의 부진으로 보이며 현재는 짧은 동영상인 쇼트클립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반대로 배달앱 업체인 메이퇀의 성장이 돋보인다. 올해 메이퇀은 처음으로 100위권인 99위에 안착해 지난 2022년 150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과거 3년, 메이퇀이 직면한 외부 환경은 "안전지대의 소멸"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업계 경쟁이 심화되어 수수료율을 낮춰 저가 전략으로 실적을 성장시키고 있다.

한편 자동차 분야에서는 비야디, 지리, 닝더스다이(宁德时代)가 100위 안에 포함됐다. 3개 기업 순위는 각각 39위, 53위와 67위였고 1년 전 65위, 68위, 85위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했다. 중국 신에너지사업의 빠른 성장으로 비야디와 닝더스다이 모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이후 비야디는 연간 전기차 판매량 300만 대를 넘어서며 부동의 국내 1위를 차지했고, 닝더스다이의 경우 세계 동력 배터리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민정 기자

CATL, 배터리 교환소 1만 개 짓는다



중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닝더스다이(宁德时代, CATL)가 중국 전역에 배터리 교환소 1만 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2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세계 동력 배터리 포럼에서 닝더스다이 최고기술 관리자(CTO) 가오환(高焕)은 "배터리 교환소 건설 최종 목표는 1만 개, 2027년까지 3000개 설립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

현장에서 발표한 PPT 내용에 따르면 2025년 닝더스다이의 배터리 교환소는 전국 30개 도시로 확대하고 500개 이상의 교환소를 보유하는 것이 목표다. 2026년에는 70개 도시 진출, 교환소는 150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배터리 교환소 개념을 처음 도입했던 니오(蔚来)자동차의 경우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2495개의 배터리 교환소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닝더스다이의 배터리 교환소는 샤먼, 푸저우, 허페이, 구이양 등의 도시에 진출한 상태다. 가장 먼저 진출한 지역인 샤먼에만 12개의 교환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기업과도 배터리 교환소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디디(滴滴)와 배터리 교환소 합자회사를 설립해 함께 배터리 교환소를 설립할 예정이며, 광치아이안(广汽埃安), 베이치그룹(北汽集团)과도 협력 중이다.

이민정 기자